
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1. 출장개요

출장목적	'2024년 한국-태국 재정정보시스템 포럼'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개도국 재정정보 현대화 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			
출장기간	'24.9.8. ~ 9.12. ①'24.9.8.~9.11.(5명, 3박4일) / ②'24.9.9.~9.12.(4명, 3박4일)			
출장국가	태국(방콕)			
출장자	소속	직급	성명	비고
	한국재정정보원	원장	박용주	
	재정시스템운영본부	본부장	김경수	
	고객지원실	실장	박성용	
	대외협력부	부장	김철현*	
	재정시스템관리부	차장	정혜원*	
	예산시스템운영부	차장	이선영*	
	재정정보분석센터	부연구위원	박정수*	
	대외협력부	부연구위원	우상희	
	대외협력부	연구원	김연민*	

* 사전 준비팀인 김철현 부장, 정혜원 차장, 이선영 차장, 박정수 부연구위원, 김연민 연구원은 포럼 준비를
위해 9.8.(일) 인천 출발 9.11.(수) 인천 도착 예정, 그 외 출장자는 9.9.(월) 인천 출발 9.12(목) 인천 도착

2. 출장일정

날짜	출발지	도착지	방문기관	업무수행내용
9.8. (일)	인천	방콕 (태국)	-	이동 (김철현 부장 등 5명)
	방콕 (태국)	방콕 (태국)	-	포럼 제작물 점검
9.9. (월)	인천	방콕 (태국)	-	이동 (박용주 원장 등 4명), 사전준비팀 리허설
	방콕 (태국)	방콕 (태국)	태국 국회	행사장 설치물 설치 및 점검, 태국 국회 고위급 정책 만찬 면담

날짜	출발지	도착지	방문기관	업무수행내용
9.10. (화)	방콕 (태국)	방콕 (태국)	태국 국회	2024년 한국-태국 재정정보시스템 포럼 개최
9.11. (수)	방콕 (태국)	인천	-	이동 (김철현 부장 등 5명),
	방콕 (태국)	방콕 (태국)	태국 재무부	태국 재무부 면담
9.12. (목)	방콕 (태국)	인천	-	이동 (박용주 원장 등 4명)

※ 사전준비팀 김철현 등 5인은 9.8.(일) 인천 출발 9.11.(수) 인천 도착 예정

3. 업무수행내용(주요 회의결과 등)

- (태국 고위급 정책 만찬 면담) ‘2024년 한국-태국 재정정보시스템 포럼’ 개최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, 한국과 태국의 재정정보시스템의 차이점 및 재정정보 현대화를 위한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 방안 논의
- (한-태 재정정보시스템 포럼) 한국의 재정정보시스템 dBrain⁺ 구축·운영 경험전수 및 태국 재정시스템 발전 현황 등 상호 공유
 - dBrain⁺ 구축·운영 경험, 운영방식, 한국의 예산편성 주기·절차 관련 제도 운영, 데이터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·분석 등 활용 사례 공유
 - 태국의 총리실 산하 예산청(Budget Bureau)에서 예산 편성 을 총괄하며 E-Budgeting(중앙), BB Local(지방), BB EVMIS(성과관리) 등의 시스템을 사용. 재무부는 GFMS를 통해 수입, 조달, 지출, 국유재산 관리 등 예산집행 전반을 수행. 국회예산처 (Parliamentary Budget Office)는 국가재정 및 경제를 연구·분석하는 국회예산기구로, 예산심의 지원과 재정운용 평가 등 업무 수행

- (태국 재무부 면담) 한국재정정보원 및 국제협력 업무소개 및 태국의 GFMIS 운영 애로사항에 따른 한국의 경험 공유
 - 태국 재무부는 상용제품의 GFMIS를 사용하였으나 라이선스, 유지보수 비용 등의 문제로 오픈소스 기반으로 자체 개발하여 New GFMIS를 22년에 새롭게 구축하여 사용 중임
 - 태국의 오픈소스 개발은 보안에 취약할 수 있는데, 한국의 경우 보안강화를 위해 256비트 암호화 체계 활용, VPN과 개별선을 통한 송수신 등 한국의 보안 방안 공유
 - 태국 재정정보시스템 통합·연계를 위해서는 시스템 간 상호 연동 솔루션 EAI(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)를 통한 정보 형태 표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

4. 시사점 및 향후계획

- 태국의 재정관리 주체는 크게 총리실 예산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무부에서는 주로 재정계획, 국유재산관리, 징수, 지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
- 태국은 예산심의(e-Budgeting), 편성 및 집행(GFMIS), 지방 예산 시스템(BBL) 등 3가지로 분리되어 있으며,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
- e-Budgeting은 2025년 개발 계획이 있음을 확인
- 한-태 재정정보시스템 포럼 및 재무부 면담을 자체개발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기관간 공감대 형성하였으며, 향후 지속적 교류 및 현대화 지원 예정

5. 출장사진

